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 자아중심성 · 자의식 ·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Emphasis on Adolescence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Body Cathexis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학교육 전공
석사과정 이 부 회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조 교 수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의류과학연구소
연 구 원 김 양 진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
Graduate student : Boo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

Assistant Professor : Aeran Koh

Research Institute of Clothing and Textile Sciences, Yonsei Univ.

Researcher : Yangjin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adolescence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body cathexi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clothing behavior of adolescence.

Adolescence egocentrism was measured by Kim's Imaginary Audience scale, and body cathexis, by selected questionnaires of Secord and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Buss's self-consciousness scale was slightly modified to assess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iv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were assessed with the questionnaires from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clothing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conformity, exhibition, dressing for others.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498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living in Seoul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Duncan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adolescence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whereas body cathexis generally were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behavior.
- 2)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ex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to clothing behavior amo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variables. Also adolescence egocentrism was proved to be one of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I. 서론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성 호르몬의 분비와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자아개념의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는 사회적 적응의 문제인데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해야 되므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동조성이 높아지면서 친구들과 행동과 외모를 비슷하게 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또한,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가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며, 부적당한 의복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Ryan, 1966).

청소년기에는 다른 인생 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양된 자의식, 패거리 짓기, 이상주의, 과시행동, 무모한 행동(폭주족, 약물 복용, 10대 임신, 위험 추구 행동), 수치심 및 수줍음에 대한 예민함 등이 그것이다(김인경, 1993).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Elkind(1967)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위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민감해짐과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신에 대해 찬양 또는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으로 표출된다.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심리적 특성이며 청소년기의 독특한 행동에 대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자아중심성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중심성과 자의식, 그리고 신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이 의복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여, 그들이 보다 바람직한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 개념은 흔히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Ford, 1979)'으로 정의되고 있다. Elkind (1967)는 청소년들이 인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듯 타인의 생각도 개념화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현상이 곧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무엇을 입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취질까에 대해 자신만큼 타인들도 흥미있고 관심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가끔씩 자신에 대한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을 창조해 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자아정체감의 추구와 관련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기집중(Self-Centeredness)성향 및 자의식(Self-Consciousness)경향과 연관될 수 있다(장근영과 윤진, 1992). 청소년들의 타인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상상속의 청중상념이 작용한 것이며(김인경, 1993), Enright 등(1979)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의식 차원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상상속의 청중과 신체상에 대한 관심, 외모와 행동에 대한 관심은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Adams & Jones, 1981).

2. 자의식

자의식은 내부나 외부로 향하는 관심의 일관된 성향을 말하며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내적감정과 공상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Jung의 내향성 개념과 유사하고,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객체로 보고 의복착용, 태도 등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사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가깝게 초점을 맞추는 심리적 특성이며, 반대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자아와 관련된 특징을 공적 자의식이라고 한다(Elliott, 1984).

자의식 정도는 청소년기 연령에서 특히 높으며, 이는 이 시기가 내적, 외적으로 자신을 많이 생각해보는 연령이기 때문이다(김민수, 1992). 사적 자의식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Enright, Lapsley와 Shukla, 1980), 또한 공적 자의식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양은주, 1993).

자의식과 의복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적·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으며(김민수, 1988), 또한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관심이 높았으며(김민수, 1992), 공적 자의식과 의복 관심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그러나 분위기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공적 자의식과 의복관심간에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Solomon과 Schopler, 1982). 또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에 의하여 인지된 분위기의 영향을 더 받았다(Kwon, 1991).

3. 신체만족도

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중 신체적 자아는 개인에 의하여 인지된 자아의 신체적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Ryan, 1966).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때이며, 급격한 신체의 변화, 사회성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송인섭, 1989) 청소년기의 신체적 만족·불만족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Horn과 Gurel, 1981).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모가 불만족하여 바꾸기를 희망

하고 있으며(김인식, 1981),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모 및 신체만족도가 낮았다(구자명과 이명희, 1994).

Horn과 Gurel(1981)은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신체에 만족하는 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여성의 주의를 끄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자아수용성과 자아정체감에 관계가 있었으며 신체적 자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신적 안정성도 높다고 하였다. 김양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신체만족도가 다소 낮게, 특히 하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으며, 외모(신체와 의복)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으로서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4.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외모, 행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고 감상적이기 때문에 의복에 따른 동요가 심하여 의복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심리적 의존성(윤창숙, 1983)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의복을 통해 표시하며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의복행동은 정서적 만족과 사회적 욕구가 동기화 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미(1975), 이은미(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성이 높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중생일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윤창숙(198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았고, 박찬부(1980)는 성적 욕구가 높을수록 옷차림에 대한 감정의 변화 즉 의존성이 높다고 하였다. 유명희(1992)는 자유복을 착용하는 남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남학생들보다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크다고 하였다.

동조성: 청소년기에는 역할의 모호성에서 오는 사회적 실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좀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기준에 동조한다(Horn과 Gurel, 1981). 청소년기는 특히 의복에 의하여 그들이 소속한 집단에 동조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이며, 이는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으

로 동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동조를 많이 하며(정미실, 1984), 남자가 여자보다 동조성을 더 나타내고(Williams & Eicher, 1966; 강혜원, 1974), 정서적·심리적 안정성이 낮을수록 외모상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다(이은미, 1985). 또한, 오희선(1991)은 가정의 분위기가 보수적일수록 좀더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과시성: 넓은 의미에서 과시성은 경제적 과시성과 주의집중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의집중성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꾸며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미성과 관련이 있으며(이명희, 1983), 이것이 과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미경(1990)의 연구에서는 의복착용동기의 장식성과 과시욕구가 정적인 관련을 보여 과시성이 장식성에서 비롯됨을 뒷받침하였다. 양승진(1986), 심소연(1983)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과시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성에 관심이 높았으며, 한편, 이부연(198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 자신이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요인에는 관심이 낮았으며 동작의 양이 많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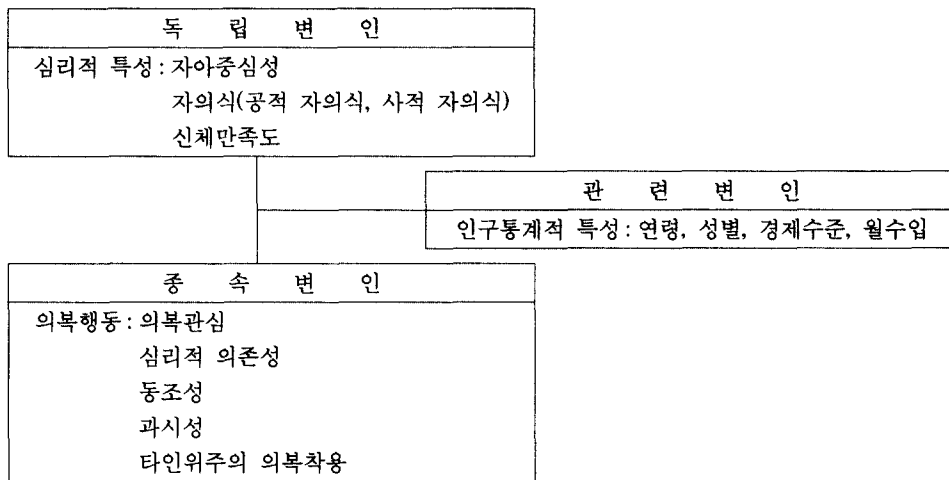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 중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기위주의 의복착용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은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타인이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며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은 자신만의 외적인 매력과 심리적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다. Ryan(1966)과 Hurlock(1976)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의복과 외모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Drake와 Ford(1979)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의 수용이 잘 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고, 자아의 수용이 잘 안된 사람일수록 타인을 의식하면서 의복을 착용하며 자신의 의복이 부적합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김미영(198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경향

이 높아졌으며 의복불만감이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즉, 타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의복불만감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에 수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의복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의복불만감이 커진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변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변인

1) 남녀 중고등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경제수준, 월수입을,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의복행동으로는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과시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포함하였다.

2)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

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3) 남녀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규명한다.

2. 측정도구

자아중심성: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 (1989)의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NIAS)의 한국판(김인경, 1993)을 사용하였다. NIAS는 대상 관계 상념(object relational ideation), 대인 관계적 환상(interpersonal fantasies), 자아에 대한 이상적인 상(vision of the self)을 내용으로 하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0$ 이었다.

자의식: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중 사적 자의식 7문항과 공적 자의식 6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7점의 Likert형 척도이며, 공적 자의식의 신뢰도는 $\alpha = .80$, 사적 자의식은 $\alpha = .66$ 이었다.

신체만족도: Secord와 Jourard(1953)가 개발한 신체만족도(The Body Cathexis Scale) 측정도구 중 신체

〈표 1〉 의복행동의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I: 의복관심					
2	나는 친구가 옷을 살때 같이가서 어떤 옷이 있나를 살펴본다.	.84	.11	.10	.06
3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가지고 본다.	.79	.22	.19	.05
1	의복을 세련되게 입는 것은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63	.32	.43	-.08
4	여러가지 다른 옷을 섞어서 입어보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는지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62	.42	.33	-.02
요인 II: 심리적 의존성					
6	나는 옷을 입었을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자주 입는다.	.10	.84	.15	.03
5	내가 입는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31	.67	.27	.12
7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34	.65	.14	.03
요인 III: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19	외모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약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22	.05	.77	.01
15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중 자신있는 곳을 강조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	.09	.26	.73	.12
16	나는 나의 옷차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37	.31	.66	.13
요인 IV: 동조성					
8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04	.06	.08	.88
9	만약 어떤 모임에서 내가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01	.04	.06	.87
고 유 근 (Eigenvalue)		5.60	1.66	.98	.90
신뢰도 (Reliability)		.85	.74	.73	.71
총 분산에 대한 비율(Pct of var)		40.0	11.8	7.0	6.4
총 설 명 력		65.3			

기능을 제외하고 신체 외모의 23부분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의 Likert형 척도에 응답케 했으며 이를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신체 각 부분의 신뢰도는 $\alpha = .62 \sim .71$ 로 비교적 안정된 값이 산출되었다.

의복행동: 의복행동 변인은 본 연구에 포함시킨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과시성 그리고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등에 관한 문항을 선행연구(김미영, 1982; 심소연, 1983; 정미실, 1984; 이은미, 1985; 양승진, 1986)로부터 총 19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다. 7점 척도의 Likert형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법에 의한 직각 회전)한 결과 요인 1 의복관심, 요인 2 심리적 의존성, 요인 3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요인 4 동조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65.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과시성에 관한 2문항을 포함한 7문항은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두요인 이상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제외되었다.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과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요인값은 문항 점수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학년, 성별 이외에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의 월수입, 가정의 직

업 그리고 형제서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남녀 중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서울시내의 지역별로 고르게 임의 표집하였다. 7월 4~5일 45명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도구를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 총 511명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9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295명, 성별로는 여학생 209명, 남학생 289명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층이 53%, 월수입은 150~300만원이 46.4%를 나타내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각 변인에 대해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 사후 검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본 연구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약 2.47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중심성 경향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중심성 경향은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중심성 경향은 고등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중기 이후 자아중심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자아중심성이 13세가 그 절정을 이루는데 비해(Elkind & Bowen, 197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중기 이후에 자아중심성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겪는 진

학과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별 차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였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에서 비롯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즉,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언행 등에 대한 여성의 주의가 강조됨으로서 여학생들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아중심성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는 의복이나 행동에 있어서 유행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로써 자신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부정적 경험에 의한 발달의 부산물이라기 보다는 정상적 발달의 일시적 퇴행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인경(1993)의 견해를 지지한다.

자의식: 전체 피험자의 사적 자의식 평균은 4.55이며, 공적 자의식의 평균은 5.10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자의식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모두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적 자의식은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과 월수입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중심성 변인에서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의 내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한 외적으로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월수입에서는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사적 자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의식의 차이는 자아중심성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의식이 자아중심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김인경, 1993),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은 그 발달 맥락을 같이하며 자의식이 상승속의 청중으로 나타나

〈표 2〉 심리적 특성 변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심리적 특성 변인		상상속의 청중	자 의 식		신 체 만 족 도			
변인	구분		공 적	사 적	얼 굴	상반신	하반신	전 신
연령	중	2.40	4.87	4.28	3.27	3.18	2.91	2.85
	고등	2.56	5.26	4.74	3.04	3.10	2.70	2.61
	F값	18.61***	13.64***	28.56***	18.51***	3.02	10.70**	13.10***
성별	남	2.36	4.61	4.23	3.19	3.25	3.13	2.99
	여	2.59	5.45	4.79	3.09	3.04	2.53	2.51
	F값	37.03***	68.73***	41.95***	3.71	17.89***	106.87***	59.19***
경제수준	상	2.52 ^a	5.17	4.69 ^a	3.16	3.13	2.83	2.76
	중	2.55 ^a	5.11	4.54 ^{ab}	3.13	3.16	2.79	2.70
	하	2.34 ^b	5.06	4.36 ^a	3.03	3.03	2.67	2.59
	F값	7.70***	.29	2.98 ^a	1.45	1.88	1.73	1.62
월수입	300이상	2.58 ^a	5.27	4.80 ^b	3.10	3.07	2.75	2.73
	200-300	2.48 ^a	4.94	4.62 ^b	3.13	3.19	2.81	2.66
	150-200	2.56 ^a	5.16	4.52 ^{ab}	3.19	3.21	2.85	2.79
	150미만	2.38 ^b	5.05	4.35 ^a	3.09	3.07	2.75	2.63
	F값	5.53***	.05	4.58**	.76	2.24	.60	1.20

a, b, c: Duncan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임

*p < .05 **p < .01 ***p < .001

는 한 예라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은주(1993)의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에서만 성차이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적·공적 자의식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적·공적 자의식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신체만족도: 본 연구의 피험자 전체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2.88점으로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하반신과 전신부분에 대한 불만감이 높았다. 신체만족도 수준은 연령, 성별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의 차이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여학생이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만족도가 높다는 Williams(1974)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구자명과 이명희(1994)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하반신에 불만이 크다는 결과는 김양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요즘은 잡지와 TV등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이 외국의 긴 다리형 체형과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므로 이에 쉽게 반응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구의 체형과 비교가 쉽게 되는 다리, 키, 체형 등이 포함된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2. 청소년기 의복행동 요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의복행동 요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의복관심: 의복관심에 있어서 본 연구의 피험자의 전체 평균은 4.62점으로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그리고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차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의복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관심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성별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매우

〈표 3〉 의복행동 변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의복행동 변인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 동조성
변인	구분				
연령	중	4.39	3.77	4.48	2.89
	고등	4.78	4.51	5.09	3.00
	F값	7.58*	32.95***	24.65***	.58
성별	남	3.87	3.48	4.18	2.73
	여	5.15	4.74	5.31	3.11
	F값	98.73***	109.72***	97.92***	7.61**
경제수준	상	4.72 ^a	4.33 ^a	5.02	2.68 ^b
	중	4.70 ^a	4.28 ^a	4.76	3.01 ^a
	하	4.19 ^b	3.84 ^b	4.73	3.38 ^a
	F값	4.04***	3.55*	2.27	6.31**
월수입	300이상	4.92 ^a	4.61 ^a	5.18 ^a	2.69 ^b
	200-300	4.62 ^{ab}	4.11 ^b	4.82 ^{ab}	2.87 ^{ab}
	150-200	4.46 ^b	4.12 ^b	4.76 ^b	3.06 ^{ab}
	150미만	4.47 ^b	4.00 ^b	4.46 ^b	3.20 ^a
	F값	2.32*	4.18**	3.31*	2.47*

a.b.c : Duncan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임

*p < .05 **p < .01 ***p < .001

높은 의복관심을 나타내었다.

Bowell은 의복이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복관심이 경제적 수준과 부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과 의복관심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의도와 마음의 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의복에 대해서도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심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복을 선택, 사용하며 또한 값에 구애를 받기 보다는 색상과 좋은 품질의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 정보를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자연히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의 전체 피험자의 평균 점수는 4.21점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으며,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류이상에서, 그

리고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원이상 집단에서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월수입이 여유가 있음에 따라 기본에 맞추어 입을 옷의 선택기회도 그렇지 못한 여건의 사람보다는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에 대한 성차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는 결과는 윤창숙(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전체 평균은 4.84점으로 타인위주의 의복행동 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신체적인 불만감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감추어 자신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타인으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의복을 수단화 시키려 한다는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연령, 성별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즉,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월수입이 낮은 가정보다는 고소득 가정일수록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이는 김미영(198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성향이 높아졌다는 결과 및 Drake(1976)의 연구에서 10학년이 9학년보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느낌이나 행동하는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타인이 인정해 주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고 해석된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경제수준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주관적 자료인 경제수준보다는 객관적 자료인 가정의 월수입이 청소년기의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동조성: 동조성의 전체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이론적 평균값에 훨씬 못미쳐 의복의 동조성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정미실, 1983; 이주현 등, 1986)에서 설문문항으로 측정된 동조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들과는 일관된 결과라 하겠다.

동조성에 대한 연령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Richard와 Hawthorne(1971), 이영선(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미실(1983)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동조성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해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성보다 의복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써 동조를 더 많이 한다는 강혜원(1995)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며, 그보다는 여학생의 의복관심이 높음으로써 청소년기의 특징인 동조행동을 의복을 통해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의복 동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류층은 자신의 경제적 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복을 선택,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정보적으로 더 많은 기

회를 가지므로 남들과 다른 개성적인 의복을 즐기려는 경향 때문에 동조성이 약하고,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상류층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등으로 의복의 동조를 통해 심리적으로 그들과 같다는 안정감을 누리 고자 하는 의도에서 의복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각 하위요인인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동조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중심성은 의복행동 각 하위요인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여 상호 영향을 주는 변인이 밝혀졌고, 자의식과 의복행동 하위요인간에도 동조성 의복행동을 제외하고 사적 자의식과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공격 자의식은 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의복행동의 각 하위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객체로 생각하는 성향이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격 자의식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볼 때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행동은 심리적 특성인 공격 자의식의 중요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각 변인들간에는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신체 부분별로는 다리와 키, 몸무게 등이 포함된 하반신과 전신 부분이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긴 다리와 큰 키, 그리고 날씬한 체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반신이나 전신에 대해서 특히 불만족하는 경향이 크며 따라서 의복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세계의 유행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표 4〉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의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심리적 변인	의복행동 요인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동조성
자아중심성	.41***	.44***	.44***	.10*
사적 자의식	.28***	.42***	.31***	.03
공적 자의식	.50***	.49***	.60***	.17***
신체만족도	-.05	-.05	-.08	-.05
상반신	-.03	-.02	-.07	-.11*
하반신	-.14**	-.19***	-.21***	-.14**
전 신	-.14**	-.14**	-.15**	-.04

*p <.05 **p <.01 ***p <.001

〈표 5〉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들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다중회귀분석

(n=498)

심리적 및 통계량 의복행동 인구통계적 변인		β	t 값	R ²	F 값
의복관심	공적 자의식	.342	7.605***	.377	80.544***
	성별 a	.267	6.399***		
	자아중심성	.208	4.699***		
심리적 의존성	공적 자의식	.249	5.532***	.412	55.546***
	성별	.262	6.372***		
	자아중심성	.197	4.386***		
	사적 자의식	.149	3.358***		
	연령 b	.113	2.857***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공적 자의식	.450	10.564***	.443	105.660***
	성별	.216	5.443***		
	자아중심성	.194	4.618***		
동 조 성	가정의 경제수준	.203	4.151***	.076	10.944***
	성별	.143	2.782***		
	공적 자의식	.125	2.475***		

a: 남자 0, 여자 1

b: 중학생 0, 고등학생 1

***p <.001

청소년들의 미의 기준이 점차로 서구화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이는 자칫하면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맹목적인 모방으로 인한 문화적 사대주의와 심지어는 가치관의 혼란까지 야기하여 ‘나’라는 정체 의식조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생활 교육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우수

한 인간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 청소년기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설명력

〈표 5〉는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 자

의식, 신체만족도와 인구통계적 변인인 학년, 성별, 가정경제수준, 월수입 등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과 연령은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으며 다단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의복관심은 공적 자의식, 성별, 자아중심성 등에 의해 37.7%가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공적 자의식($\beta=.342$), 성별($\beta=.262$), 자아중심성($\beta=.208$)순이었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은 공적 자의식, 성별, 자아중심성, 사적 자의식, 연령 등에 의해 41.2%가 설명되어지고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는 성별($\beta=.262$), 공적 자의식($\beta=.249$), 사적 자의식($\beta=.149$), 연령($\beta=.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은 공적 자의식, 성별, 자아중심성에 의해 44.3%가 설명될 수 있으며 공적 자의식($\beta=.450$), 성별($\beta=.216$), 자아중심성($\beta=.194$)의 순으로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동조성은 가정경제수준, 성별, 공적 자의식에 의해 7.6%가 설명되어지고 이중 가정경제수준($\beta=.203$)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여러가지 독립변수들 가운데서 의복행동의 각 하위요인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는 공적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이었고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성별변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중심성을 측정 한 상상속의 청중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여학생 집단과 가정의 경제수준과 월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비교적 상상속의 청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의식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

히 사적 자의식에 비해서 공적 자의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특히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여학생 집단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은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동조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 중고등학생 모두 동조성을 제외한 의복행동의 각 하위요인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보여 의복행동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행동의 각 요인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의복관심, 심리적 의존성 그리고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변인과 자아중심성,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의복관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공적 자의식, 성별, 자아중심성이었고 심리적 의존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공적 자의식, 성별, 자아중심성, 사적 자의식 그리고 연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있어서는 공적 자의식이 매우 높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성별과 자아중심성 변인이었다. 동조성 요인에는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 공적 자의식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공적 자의식과 자아중심성, 그리고 성별변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의식과 특히 이제껏 연구되지 않았던 자아중심성을 연구변인으로 다루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의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남녀, 중고등학생을 임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

대 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의복행동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학년이 중고등학교 2학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발달과정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 및 다른 연령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인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중 상상속의 청중만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 우화와 의복행동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상상속의 청중은 다양한 개념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하위개념별로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도 의의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 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 논총, 349-376.
- 2)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 교문사.
- 3)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4) 김미경(1990), 의복착용동기의 욕구및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미영(1982),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민수(1992), 성인여성의 자의식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오산전문대학교 논문집, 제 12권, 487-511.
- 7) 김민수(1988), 자의식과 의복동조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31-41 .
- 9) 김양진과 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10)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김인경과 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12) 김인식(1981), 청소년 심리, 서울: 배영사, p. 164-165.
- 13) 박찬부(1985),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과 적응성 및 자기존중수준과의 상관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 연구논문집, 11, 529-560.
- 14)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각.
- 15) 심소연(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 자율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양승진(1986),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27-35.
- 17) 양은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오희선(1991), 심리적 특성이 의복행동 및 suit image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윤창숙(1983),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부연(1985), 남녀고등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 4, 133-139.
- 21) 이은미(1985),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주현·강혜원·조길수(1986),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3), 63-70.

- 23) 장근영과 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1), 157-175.
- 24) 정미실(1984),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Kwon, Y. H.(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od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41-47.
- 26) Adams, G. R. & Jones, R. M.(1982), Adolescent egocentrism: Exploration into possible contribution of parent child re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5-31.
- 27) Chandler, M.(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28) Drake, M. F. & Ford, I. M.(1979),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
- 29)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30)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38-144.
- 31) Elliott, G. C.(1984),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A source further distinction in the nature of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4), 285-306.
- 32) Enright, R. D., Lapsley, D. K. & Shukla, D. G. (1980),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33) Fenigstein, A., Scheier, M. F., and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522-527.
- 34) Ford, M. E.(1979), The construct-validity of egocentrism, *Psychological Bulletin*, 86, 1169-1188.
- 35)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36) Hurlock, E. B.(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rmo Press.
- 37)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38) Lechner, C. R., & Rosenthal, D. A.(1983), Adolescent self-consciousness and the imaginary audience,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10 (2), 289-305.
- 39)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40) Secord, P. F. &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41) Solomon, M. R., & Schopler, J.(1982),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ersonality and Psychology Bulletin*, 8, 508-514.
- 42) Williams, M. C. & Eicher, J. B.(1966), Teen-age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58(6), 457.